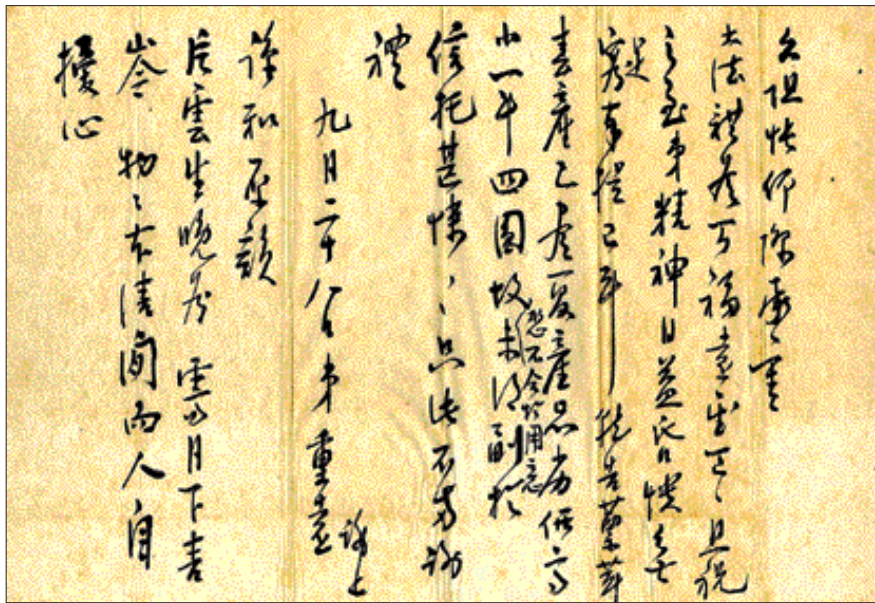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16)

“표고버섯과 남은 돈 7원2전 보냅니다”



한암 선사가 진진응 화상에게 보낸 답서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2통

1. 오랫동안 적조하여 그림던 차에 서찰을 받고서야 법제가 만족함을 알았습니다. 멀리서나마 위안이 되고 한편 송축하는 마음 지극합니다. 나는 날이 갈수록 정신이 혼미하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표고버섯을 사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봄에 나는 것은 이미 끝났고, 여름에 나는 것은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소두 한 말에 4원씩이나 합니다. 마음에 들지 몰라 부탁을 못 들어드립니다. 심히 송구합니다. 이만 줄이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9월 28일
제(弟) 중원은 답서를 올립니다.

원운(原韻)에 화답함.

조각구름은 저물녘 골짜기에 꺾어오르고 맑은 달은 푸른 산봉우리에 지는구나. 만물은 모두 본래 청한(淸閑)하기를 중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네.

경봉 스님에게 보낸 답서(答書)다. 경봉 스님이 표고버섯을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한 듯하다. 이에 대하여 한암 스님은 “표고버섯이 봄에 나오는 것은 이미 끝났고, 여름에 나는 것은 품질도 않은데 값은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못 사겠다고 말하고 있다. 편지 끝에 선사(禪師)는 경봉 스님의 원운에 답한 것이다. “만물은 본래 청한(淸閑)한데, 중생은 부질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무심(無心), 무사(無事)를 읊고 있다.

2. 삼가 서찰을 받고서 법제 내내 만족함을

알았으니, 멀리서 위안이 되고 송축합니다. 부탁하신 표고버섯은 때가 늦어 구할 수가 없어서 월정사 종무소에 부탁을 했더니 사중(寺中)에서 사서 비축해 둔 것이 있는데, 매일(買入)했던 값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소두 한 말에 2원 49전, 두 말에 도합 4원 98전씩입니다. 보내온 돈 12원 중에서 이 금액을 제하면서 7원 2전이 남습니다. 소포 부치고 아울러 시장에 간 사람의 식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보내오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弟)는 병세가 여전하고 대중들도 그 력저력 같으니 다행입니다.

11월 6일
제(弟) 한암(漢岩) 배사(拜謝)

경봉 스님이 거듭 한암선사께 표고버섯을 사 달라고 부탁한 듯하다. 한암선사는 때가 늦어서 구할 수가 없고, 월정사 사중에서 쓸려고 사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산 값 그대로 구해서 보낸다는 것이다. 값은 소두 한 말에 2원 49전, 두 말에 도합 4원 98전이며, 보내온 돈 12원 가운데 이 금액을 제하면서 7원 2전이 남고, 소포 부치고 아울러 시장에 간 사람의 식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은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당시 오대산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멀리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는 경봉 스님이 부탁할 정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모양이다. 이즘은 한암선사는 건강이 매우 좋지 못했다. 두 편지 모두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편지는 모두 1942년에 보낸 편지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공동체 가치는 삶의 큰 대안” ... 연기적 삶 구현한 생명 살림 20년

이정호 인드라망 생협 사무이사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귀농바람이 불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귀농가구 수는 5만 4557가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할 정도로 귀농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농이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에서는 생소한 단어였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사무이사(46)는 귀농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그 시절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온 사람이다. 그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불교귀농학교’를 통해 농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 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드라망 생협 사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주력, 도농 공동체 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산살리기, 천성산살리기를 비롯해 불교생협연합회 등에서 소임을 맡으며 불교적 생명살림 운동에 동참해왔다.

이정호 사무이사는 “불교의 대중화는 생명운동으로 회향돼야 한다. 중장불사나 복지사업들도 좋지만 다분히 인간중심적인 사업이다. 불자들이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교 생명살림 운동에 대해 강조했다.

목동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불교생명평화와 공동체 삶에 대해 들었다.

도법 스님과의 인연

이정호 사무이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으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청주 용화사 고등학교 불교학생회에 참여하면서 더욱 깊이 불교를 믿게 됐다. 대학 시절에는 대불련 서울지부에서 활동했다. 이때 지금의 아내이자 도반인 변혜준(45)씨를 만났다.

“시절이 시절인 만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통일운동이나 5공청산, 10·27법난 진상규명 촉구같은 투쟁을 하면서요.”

이 사무이사 만큼 아내 변혜준 씨도 불교와 인연이 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동네 인근 사찰에 많이 다

닌 번 씨는 초등학교부터 불교모임에 참여했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레 대불련에 가입해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결혼 18주년을 맞는 이들 부부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소양을 키운 이정호 사무이사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불교재단단체의 소임을 맡았다. 스님들이 만든 신행단체인 ‘선우도량’에서다. 선우도량은 ‘승풍진작, 율바른 수행자상 정립,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활동’을 모토로 1990년에 결성된 조계종의 비구결사로, 도법 스님은 당시 선우도량 창립과 활동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사무이사와 도법 스님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불교학생회·대불련 활동하며 불교 심취 선우도량서 도법 스님과 인연 시작

생명·생태운동의 근원적 활동은 ‘농업’ 귀농학교서 생명존중 배우며 농민 육성

생협은 “구성원들 생태사회 위한 활동 공간” “불교대중화는 생명운동으로 회향돼야”

“제 법명은 ‘효원(曉園)’입니다. 1998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창립 무렵, 삼입대표였던 도법 스님께서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는 새벽동산처럼 늘 부지런하게 살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맞게 살고 있는지 못내 쑥스럽기만 합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와 귀농

1990년대 초·중반부터 우리 사회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로움과 삶과 가치에 중점을 두는 흐름이 점점 확대됐다.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

체가 많이 생겼고 시민운동의 큰 흐름이 됐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도 이런 흐름에 맞춰 탄생했다. ‘모든 생명이 서로 관계되어 있으며 너 나 할 것 없이 존귀하다’는 연기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것이다.

“1970~80년대가 격동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모색의 시대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분출되고 억눌렸던 다양한 의견들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우리 사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 하는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도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당시 한국 사회를 ‘생명의 위기, 문명의 위기’로 진단 내렸습니다.”

당시 불교사상과 방법론에 입각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했던 도법 스님과 선우도량은 불교적 자원, 즉 사찰과 생명존중사상을 통한 생태운동을 고안했다. 그리고 1998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설립해 생활 속에서 새로운 ‘생태주의적 철학과 생활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대안은 귀농운동, 공동체운동, 밥상살림운동, 빈그릇운동, 생협운동 등이었다.

“생명·생태 운동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해보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농업이었죠.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태계균형을 맞추는 일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호 사무이사는 불교귀농학교, 실상사귀농학교, 현장귀농학교 등에서 다양한 이유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의와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불교귀농학교’에서는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몇 가지로 압축해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농업을 추구하는 농민을 육성하고, 두 번째가 휴과 함께 건강한 농촌문화를 만드는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연기적 세계관으로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해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 등에 의존하는 농업방식이 우리나라 모든 농촌에 보급됐다. 이러한 농업방식은 결과적으로 땅을 죽이고, 농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오염된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먹는 도시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교귀농학교에서는 생명유기농업을 통해 땅과 농민



인드라망 생협 물류센터 개소식때 도법 스님(가운데)과 함께.



2003년 강원도 횡성군 농민회와 서울 강남 봉은사간 농산물 직거래 협약을 맺어 불교계 최초의 도농 공동체 기반을 닦았다.



불교귀농학교에서 강의를 펼치는 이정호 사무이사.

📍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8월 16일 189만원

8월 16일 189만원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9월 16일, 9월 12일 출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	--------------------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 마하연투어 📍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형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4시간 여행자 보험 가입